

강진의 봄 맛·멋·축제로 물든다



여기가 핫플

'강진 불금불파·전라병영성·마랑놀토수산시장'

강진의 4월은 말 그대로 불타오른다. 지난 3일 개장한 불파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불금불파'를 시작으로 11일 벌써 10년의 아성을 쌓아 올린 마랑놀토수산시장 개장. 17일 전라병영성 축제가 막을 올린다.

△불금불파 불고기·공연·체험 아간관 광 프로그램 풍성

지역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음식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불파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강진 불금불파'가 지난 3일 개장했다.

불금불파 행사는 지난 3년간 방문객 3만 8454명, 판매실적 6억3100만원, 문화예술 체험 인원 1만7689명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체험형 야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시장 상권과 지역 콘텐츠를 결합해 '먹거리·공연·체험·관광'이 한 번에 이어지는 구성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권에 활력을 더해 왔다.

올해 먹거리 운영은 지역조직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불고기 판매는 병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불고기사업단에서 진행하며, 위생·원산지·안전관리 등 기본 운영 기준을 강화해 신뢰받는 먹거리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로컬브랜드 사업과 연계해 방문형 프로그램인 '병영 한골목길 돌담투어'를 운영한다.

투어 프로그램은 병영 문화관광지 방문→한골목길 산책→맛집 투어 순으로 구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시장과 마을 골목상권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을 넘어 '걸고, 보고, 맛보며, 머무는' 야간 콘텐츠로 병영권역의 매력을 제고할 수 있다.

문화공연은 기존 EDM 중심 구성에서 변화를 주어, 상반기에는 '스페셜 웨디데이·원장리' 방식으로 월별 테마에 맞춰 단일

장르 집중형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4월은 '봄의 낭만'을 주제로 어쿠스틱 또는 제2장르를 중심으로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3일에는 특별가수 '싸이버거' 초청 공연으로 개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행사장 접근성과 관람 편의도 개선됐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차장 67면을 새로 조성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도 확보했다. 강진군은 행사 기간 중에도 주차 안내, 보행 동선 정비, 안전요원 배치 등 현장 관리체계를 촘촘히 운영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 불금불파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지역 대표 야간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 관광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병영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강진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장 운영의 기본인 안전·위생·질서를 확실히 다지는 동시에, 콘텐츠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강진. 밤이 즐거운 강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불금불파·마랑놀토수산시장·전라병영성 축제 광파르 매년 관광객 운집...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 주춧돌 행사장 접근성·관람 편의성 개선... 방문객 중심 행사



불금불파



마랑놀토수산시장



전라병영성

△불바람과 함께 온 강진 마랑놀토수산시장 개장

강진 '마랑놀토수산시장'이 올해도 봄바람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1일 마랑 중방파제 일원에서 개장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모두 30차례 운영된다.

수산물 좌판과 음식점, 건어물 판매점, 할머니 장터, 길거리 음식점 등이 함께 참여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봄에는 갑오징어와 주꾸미, 여름에는 농어와 전복, 가을에는 전어와 꽃게 등 계절마다 다른 제철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시장의 큰 매력이다.

강진군은 올해 마랑놀토수산시장을 콘텐츠 기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객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방대 카페를 연계한 체험·전시 콘텐츠를 확대한다.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바다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놀토 사진 공모전 입선작 전시 및 소규모 전시회를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도토리 캐리커처 및 공방 체험 등 MZ세대를 위한 체험형 이벤트 확대했다.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중력 퍼포먼스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공연도 이뤄진다.

여기에 신메뉴 개발, 이벤트 기획 등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포 간 협력 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시장 한쪽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마술쇼나 버블쇼 같은 공연도 더해져 시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치게 만들었다.

관광객은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상인들은 활력을 얻는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시장이 지역경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다.

지역의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강진군이 꾸준히 추진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

마랑놀토수산시장은 그 흐름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공간이다. 토요일마다 활기를 찾는 마랑놀의 풍경 속에서 강진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 잘하는 강진군'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 있다.

'놀토'라는 이름처럼, 토요일이면 마랑놀은 조금 더 즐거운 공간이 된다. 싱싱한 제철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장터의 정겨운 분위기가 어우러진 마랑놀토수산시장에서 강진의 또 다른 토요일 풍경이 다시 시작된다.

△호국의 심장 전라병영성축제 17~19일 제29회 전라병영성축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강진군,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세대가 함께 머무는 참여형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 확대,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서 전라병영성 인지도 제고, 호국의 역사에서 오늘의 안보로 이어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식 프로그램으로 오는 18일 오후 3시 열리는 병마절도사 병영성 임성익 퍼레이드 개막식을 대신한다.

공연프로그램으로 전통무예공연, 성을 올린다. 병영성을 채운다. 국악비보이, 조선 마술공연, 어린이 심어롱쇼, 전통 연희 공연이 주무대와 축제장 부스내에서 열린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 무과시험, 활쏘기 리그가 펼쳐진다.

체험프로그램은 더 다양하다. 전라병영성 성곽 밭기와 전라병영성 성곽 쌓기, 조선의복 체험, 전통 무예체험, 전통놀이체험이 축제기간 사흘 내내 가능하다.

이와함께 전라병영성 명예군인증 발급, 군번줄 만들기, 전라병영성 도화서, 공예 공방쇼, 무기 공방쇼, 바둑 한 수 장기 한 판, 시원한 타투 체험, RC카 레이싱, 레이저테크 서바이벌을 즐길 수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